

MENA 지역 유가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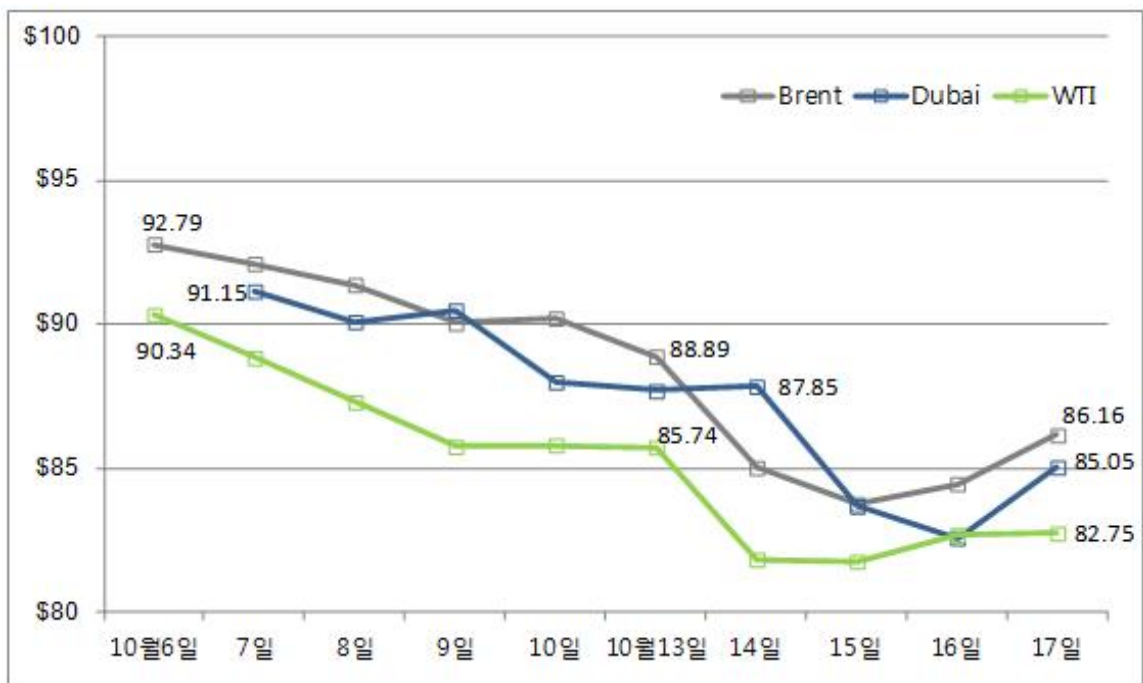
2014. 10. 21
두바이사무소

1 유가 동향

- 지난주 유가는 감산에 대한 OPEC의 미온적 태도 및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, 세계 원유수요 감소 전망으로 두바이유 기준 U\$85.38/배럴을 기록(전주 평균대비 U\$4.56, 약 5% 하락)

최근 유가 현황

(U\$/배럴)



*10/6일은 싱가포르 휴일로 두바이 미입전

2 유가 전망 - 하방 압력이 큰 상황

- (OPEC 동향) 베네주엘라가 유가 하락에 따른 OPEC 특별 대책 회의를 요청하는 등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 타격이 큰 산유국은 OPEC감산 필요성을 주장
 - 쿠웨이트 알-오마이르 석유장관은 국제유가가 미국과 러시아의 생산 원가인 U\$76~77불 아래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, OPEC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밝힘
 - 11월 27일 OPEC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, 회원국들 사이에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, OPEC이 감산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
- (미국 경기) 10월 28~3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에서 양적완화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, 연준 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 약화 및 유럽 등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양적완화 종료 결정을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
 - 하락세를 보이던 미 증시는 동 주장 이후 양적완화 종료 연기 기대감에 반등하기도 하였으나, 재닛 옐런 의장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낙관론을 유지 → 양적완화 종료 결정 전망이 우세
 -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 발표시 유가는 하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, 미 연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러화 강세로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
- (리비아) 올해 9월말 90만배럴 이상으로 회복했던 리비아 월 생산량은, 동부유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로 현재 80만 배럴 수준으로 10만 배럴 감소
 - 지난 6월 선거에서 패한 이슬람 세력이 자체적으로 행정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등 리비아 내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고 있어, 리비아 생산은 80만 배럴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- (이라크) IS반군이 수도 바그다드 20km까지 접근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나, 바스라 등 남부의 주요 유전 및 수출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아직까지는 생산 및 수출에 영향이 없는 상황

이라크 주요 유전 및 정유시설 지도



- (세일오일) IAE(국제에너지기구)에 따르면 세계 석유 생산의 약 2.8%에 해당하는 260만 배럴의 생산원가가 U\$80불 이상
 - 미국 세일오일의 경우 평균원가가 U\$60~70로 추정되고 있으며, 생산량의 4%에 해당하는 물량(15만 배럴)만 원가를 80불 이상으로 보고 있음

- (투기자금) 지난 주 투기자금의 NYMEX 순매수 포지션은 176,671건으로 전주대비 15,537건 하락
 - NYMEX 선물시장의 투기자금 매수포지션은 6월부터 지속 감소추세를 보여 현재 6월 고점 대비 약 50% 감소한 상황